

지역 소식통

고창군 지역사회복지조직

역량강화 대회 열려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고창군지역사회복지조직 역량강화대회'가 3일 오전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동영상 시청, 14개 읍면 지역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 읍·면 시례발표, 역량강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고창읍, 고수면과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다.

김현기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복지에 대한 협신적인 지지와 열정이 향후 우리 고창군민들의 복지 미래를 열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체

감도가 향상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조 프로그램 개강

부안군 상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일 상서면민의 문화·여가생활의 즐길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체조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꽃넓은 연령층에 걸쳐 수강생이 접수돼 상서면민의 세대간 정보공유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내 고장을 아끼는 마음가짐과 친절?질서? 청결의 생활화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군민이 행복한 잠버리 도시 부안을 구축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김종식 상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열렬한 희망 아래 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보이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총력'

정읍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인적자원·후원·운영 방향 등 논의

정읍시가 아동복지 사업지대를 발굴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별달을 도모하고 광범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0세~임산부) 부모·만 12세(초등학생·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 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50명을 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4개 분야에 걸쳐·별달 치료 지원과 미술·교실·멘토·멘티 부모교육 등 38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안정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 및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 드림스타트는 3일 정읍시청 종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보육·복지 분야의 공무원과 협력기관장, 아동 관련 민간전문가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적자원과 후원·인프라 구축·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상호 소통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운영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각자 타고난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부스행사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안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안상설시장, '수산대전' 부스 행사

구매금액별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부스행사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안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추석명절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부스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2차 행사로, 주최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수산업

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부안상설시장상인회(회장 김현호)가 손을 맞잡고 진행하는 행사이다.

행사에서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1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권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 5000원권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대상 수산물 점포는 부안상설시장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점포에는 관련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지참해 부안미실공영주차장 시장출입로로 방문하면 된다.

1주일 기준으로 1인 1회에 한해 당일에 사용한 소액 영수증을 합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11월의 인물, 김영상·임대홍 선정

정읍의 인문·역사적 가치와 시민 자긍심 고취 위해 매달 2명씩 선정

정읍시는 11월의 역사 인물로 구한 말 우국지사 김영상과 국산 조미료의 아버지 임대홍을 선정했다.

동학·의병·호국 분야에서 선정된 김영상(1836~1911)은 태인(현 철보) 무성리 원촌에 거주했다.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일으킨 태인의병 당시 70세 노령의 나이에도 최의현·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 운동을 주도했다.

1910년 국권회복 후 일제가 주는 은사금을 거절하고 사령서를 끊어버려 1911년 5월 2일 구금됐다.

군산 감옥으로 이송 중 만경강에 부신했으나, 일제 혙령에 의해 구조되어 수감되자 8일간 단식해 육중 시oning했다.

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문화예술·기타분야에 선정된 임대홍(1920~2016)은 정읍출생으로 고창군 청에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했다. 광복 직후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읍에 피혁공장을 세웠다. 일본 대표 조미료 회사인 아지노모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55년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제조법을 습득했다.

1966년 '미원'이라는 이름의 조미료 사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부터는 인도네시아·일본·홍콩·아랍트·인도·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조미료 외 각종

장류와 냉동식품 육가공 식품 등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확장했으며, 198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식품 연구에 매진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역사적·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인문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사 인물을 지속 빛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읍의 인문·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정읍을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전통시장 부스 행사' 선정

정읍 샘고을시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부스 행사에 지난 9월 1차에 이어 2차 행사에 선정됐다.

전통시장 부스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36개 점포에서 물품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다.

샘고을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이홍구)가 해양수산부와 전국상인연합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행사를 유치하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17,000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권,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권,

5,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5천원권,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 대상의 수산물 점포 확인은 샘고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점포에는 관련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상품권 환급은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지참해 샘고을시장 내 고객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1인 1주 최대 2만원 2주 최대 4만원 환급이 가능하고, 당일에 사용한 소액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시내 주요 구간에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김석진 기자

부안청년회의소, 균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JCI 부안청년회의소(회장 강동우)는 3일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육성에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부안청년회의소 회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당근마켓 등 온라인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기탁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택트(Ontact)를 통해 회원들이 장기 간 수익금을 모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권의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얻은 값진 수익금을 기탁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잘

로네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시점에서 오프라인 바자회 등을 하기 어려워 있는데 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온택트 바자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작은 수익금이지만 기탁한 장학금이 부안군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의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얻은 값진 수익금을 기탁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